농협중앙회의 획일적인 고객만족(CS) 평가제도 반대!

노동자에게 스트레스를?! 고객님께 감동을?!
'85점 미만 지점 노동자 전원 징계(주의 촉구)'
'객장에 있는 의자를 모두 빼버렷!'
'혹시 모니터 요원인가?'싶어 대출 상담시 거절대상 고객에게도 주저 주저~
'어머니, 오셨어요?' 앗! CS모니터 요원이 나타났다! '고객님~어서오십시요'
'성과급 차등지급, 인사발령 무기한 연기, 조기출근...'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모니터요원에게 잘못 비춰지면 고생한 보람도 없이 CS평가 점수가 나락으로 떨어져 이래저래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농협 노동자들은 진짜 고객에게 친절한 마음을 나눌 여유도 없이 모니터요원이 왔는지 확인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객만족(CS) 평가입니까?!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농협

모니터 요원 때문에 노동자들은 행동, 말, 외양 하나하나에 부자유스러움을 느끼며 일할 수밖에 없으며, 되레 업무만 늘고 진짜 고객들의 대기시간만 늘어납니다. 또한 CS평가 점수가 업적평가에 반영되면서 각 사업장 마다 평가점수에 따라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싶다구요?
그렇다면 차라리 노동자를 위축시키는 감시와 통제가 아닌 자율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 **노동자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의 시장과 선진화, 그 탐욕과 야만에

지역농협 노동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투쟁으로 맞선다!!!

투쟁 결의문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을 위한 '시장', 단 몇 푼의 이윤을 유일한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선진화'로 사회 전부를 개조하겠다고 나 선 이명박 정부의 발악은 우리 삶 전체를 겨누고 있다.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 역시 예외이지 않다.

삽질에 의해 사라질 운명에 처 한 농지, 휴대폰과 비교되는 농업이 농민의 오늘을 지배한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상시해고의 협박을 감내하고 있는 얼굴.
협동조합의 풀뿌리인 지역농협을 없애고 농협을 주식회사로 살게 하는 것을'농협 개혁'이라 이야기하는 자들의 무지와 광기.
자신들만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절대 다수인 사람들의 삶을 강탈하려는 자들의 폭력.
우리 사방을 에둘러 싼 농 · 식품부의 주식회사'NH 금융지주', 농협중앙회의'지역농협 통 · 폐합 프로젝트'그리고, CS 평가까지 그 실체는 더 없이 생생하다.
이것이, 여느 노동자와 똑같이 온갖 폭력과 탄압에 포위된 지역농협 노동자의 일상이다.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보다 많은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선택하고 약속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승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투쟁'이다.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힘주어 새긴다.

— 다 음 —

■ 우리는, 노동자 생존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앞 선 공공의 가치임을 재확인하며 상시해고와 비정규노동 강요, 임금체계 변경과 CS 평가의 강제 이식, 그리고 지역농협에 대한 무조건적인 구조조정등 일체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고 우리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협동조합을 주식회사 NH 금융지주로 개명하여 금융 산업에 복속시키려 하는 자들에 대해종언을 고하는 바이며 '농민과 지역농협 중심의 질서재편'을 기치로 지역조합이 회원이 되는 각 사업 연합회로의 신용 · 경제 사업 분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이와 함께 각 도 · 시 · 군 · 구 금고 운용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지방세 수납업무 비용 보전 쟁취 투쟁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비틀린 농협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지금의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마침하여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의 미래를 제대로 책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휘두르고 있는 시장과 이윤의 야만을 무릎 꿇릴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매일을 투쟁함에 있어 노동자 · 농민 동지들과의 단결과 연대를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의 전부를 '동지'의 이름으로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6월 20일
전국 농협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함께 외쳐봅시다!!

협동조합 말살음모 금융지주 반대한다!
연합회방식 신경분리로 농협중앙회 개혁하자!
올바른 신경분리 농협개혁 앞당기자!
임금삭감 명퇴강요 투쟁으로 박살내자!
협동조합 구조조정 총단결로 막아내자!
구조조정 박살내고 생존권을 사수하자!
노동자 감시통제 CS평가 반대한다!
거짓웃음 강요하는 모니터요원 반대한다!
주관적인 CS평가 업적반영 반대한다!
공공금고 운용수익 지역으로 환원하라!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 농협노동자 총력 결의 대회

일시_2009년 6월20일(토), 오후 2시 장소_여의도 국회앞

사전마당 : 대오 정리 및 기세올리기

본대회
- 대회선포 : 깃발입장 및 노동의례 / 내외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와 어울림 : 문화공연 / 격려사 / 연대사
- 결의마당 : 투쟁사 / 문화공연 / 상징의식 / 결의문낭독

연합회 방식 농협중앙회 신용 · 경제사업 분리 쟁취!
구조조정 분쇄 및 농협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협중앙회의 획일적인 CS평가제도 폐기!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영수익 지역환원!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개혁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연합회 방식으로 !!

2010년부터 농협중앙회를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겠다고?!

정부 농협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농협중앙회 신 · 경분리 추진방안' 건의안 ➡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

그동안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의 돈놀이 사업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산지농산물 유통망 확충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즉, 기존 농협중앙회를 운동체적 기능을 전담하는 농협중앙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출해왔습니다. 사업체 기능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역조합이 출자하여 회원이 되고, 소유하며 회원이 직접 연합회를 이용하고 지배하는 구조로서 농협법 틀 내에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는 말 뿐이고 오로지 금융자본으로서의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일 뿐입니다. 이는 농업과 농촌, 농민의 보호 및 육성,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조직 질서 재편이 절실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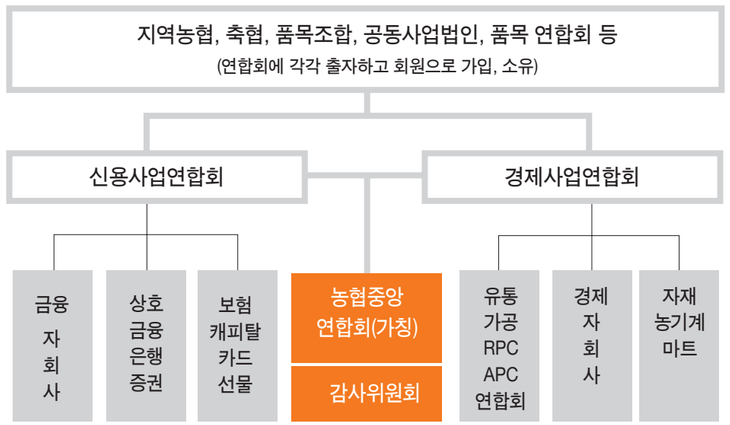
협동조합 제대로 해보자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외쳤건만 "금융위기, 자산 건전성" 운운하며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완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지주회사로 분리된다면?

농업정책금융보다는 수익위주로 투자자 위주의 사업만을 고집
지역조합은 일개 주식 투자자로 전락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을 고사시키는 최첨병 역할하게 될 것

농협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농협의 질서 재편까지 몰아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에 대해 뒷짐지고 지켜볼 순 없습니다!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연합체 전환과 함께 하는 '각 사업연합체' 체제로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쟁취를 위해 투쟁합니다!

전국농협노조의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질서재편안



- 비사업적 기능의 농협중앙회는 자본금을 소유하지 않고 지역농협 및 각 사업연합회 분담금으로 운영
-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에 대한 출자와 소유는 지역농협이 갖도록 함
- 지역농협은 종합농협제제로 유지하며, 농협중앙회 시 · 군지부 및 시 · 도지역본부의 사업을 지역농협(지역농협연합회)에 이관하고 폐지
- 시 · 도단위 지역농협연합회를 설립하여 조합간 및 연합회간 협동 및 조정역할과 지역사업을 담당

지역농협 강제구조조정 분쇄! 생존권 사수!

매년 반복되는 농협 개혁의 요구!
그러나 농협 개혁의 대책이라곤 오로지 지역농협과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공격뿐.

무이자 자금 지원 중단, 조합선택권 시 · 군단위로 확대, 지역농협 등급제 실시, 도(道) 단위 인사이동 실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삭감, 연봉제 도입을 염두에 둔 성과급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명예퇴직 등의 상시퇴출제 도입 등으로 지역농협과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이 주요 목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의 '지역조합은 200개 정도로 줄여야...' 발언에 이어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지역농협 합병지원계획'

- 합병조합 조합장, 상임이사 · 감사들에게 '합병퇴임공로금' 지급
  (자율합병 조합장의 경우 : 최고 5천만원 + 잔여임기 동안 보수액의 50% 지급)
- 합병 추진 조합에 대해 종합경영평가 및 업적평가 시 가점 부여, 합병권고 미이행 조합은 감점 뿐만아니라 각종 자금 지원중단 및 조합지원자금 기한 만료전 회수 조치
- 합병 추진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 특별상여금 지급 등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 도(道) 단위 인사이동 · 중앙회, 지역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직원 간 파견 근무 활성화
- 조합 임직원 급여제도 개편 추진
- 생산성에 비례한 급여의 합리적 조정 및 조합별 급여 차등 최소화
- 고연령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생산성에 비례한 급여의 합리화
- 농업, 농촌, 농협 발전을 저해하는 무능력 직원 상시 퇴출

능력주의라는 명분하에 고과를 통한 개인별 지급률을 결정하고,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경쟁을 유도하여 노동자를 '개별화', '차별화' 합니다.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겠지요.
또한, 단계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연봉제로 확대할 것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재원일 텐데 이를 성과에 따라 지급할 경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임금 축소로 나타나지요.
또 하나, 지역농협 간 임금격차 해소는 지역농협 등급제와 연동하여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향평준화가 아닌 전반적인 임금 축소 및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임금 격차 해소가 될게 뻔합니다.
'현장-노동조합의 무력화, 전반적인 임금의 축소 및 근로조건 저하, 성과급제와 연봉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도(道)단위 인사이동 실시, 파견근무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상 도시형 농협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배불리기를 위해
지역농협과 지역농협 노동자를 다 죽이겠다는
정부와 농협중앙회!
가만 두시겠습니까?